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3분기 미 GDP 예상 보다 커... 연율로 5.2%
- Bloomberg: 빌 에커먼 “연준 금리 인하 빠르면 1분기에”
- WSJ: 미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불구, 아직 낙관은 아니다

[미국 금융]

- WSJ: GM, 투자자 안심시키려 자사주 1백억불 매입

[미국 생활]

- Bloomberg: 미 기대 수명은 2022년에 개선... 코비드로 부터 회복
- WSJ: 미국 자살률은 작년에 사상 최고치로 늘어

[주택]

- CNBC: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모기지 수요가 힘얻어

[에너지]

- WSJ: COP28에서 느린 에너지 전환 기대 바뀌지 않을 듯
- CNBC: OPEC+ 산유국들, 내부 갈등 해결 못한 채 회담 참여할 듯
- Bloomberg: IEA, “제로 탄소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 두배 이상 올려야 한다”

[전기차]

- Bloomberg: 전기차 기업들, 낮은 리튬 가격에 걱정 준다

[자동차 파업]

- CNBC: GM, “새노조 계약으로 93억 불까지 비용 증가”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기술 기업들, 성장보다 비용 감소에 초점 맞춘다
- CNBC: 애플, 골드만 삭스에 신용카드 제휴 중지 요구
- Bloomberg: 디즈니, 상하이에 첫 ‘주토피아’ 테마파크 개장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Economy Grew 5.2% in Third Quarter, More Than First Estimated

3분기 미 GDP 예상 보다 커... 연율로 5.2%

- 비즈니스 투자와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 3분기 성장이 상향 조정됐다. 국내 총생산량이 3분기에 연율 5.2%로 상향 조정됐다. 지난 2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다.
- 오늘 발표된 연방정부의 관련 두번째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은 3.6%로 강하지 못했다. 서비스 지출 둔화를 반영한 것이다.
- 기업투자와 주택 투자도 당초 보다 상향 조정됐다,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Bill Ackman Bets Fed Will Cut Interest Rates as Soon as First Quarter**빌 에커먼 “연준 금리 인하 빠르면 1분기에”**

- 억만장자 투자가인 Per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 창업자인 Bill Ackman은 연준의 금리 인하시기를 시장의 예측보다 빠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그는 “빠르면 1분기에 발생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스왑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6월 금리 인하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.
- 그는 그 근거로 인플레이가 감속하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Consumers Grew More Confident. They're Not Exactly Optimistic Yet**미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불구, 아직 낙관은 아니다**

- Conference Board의 미 소비자 신뢰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하며 상승했다.
- 그러나 소비자 향후 전망 기대 지수는 3개월 연속 80아래를 기록했다 (77.8). 소비자 기대 지수가 80을 밑돌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신호라는 것이다.
-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물가상승에다가 전쟁/위기 갈등, 그리고 고금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GM Plans \$10 Billion Stock Buyback in Bid to Assuage Investors**
GM, 투자자 안심시키려 자사주 1백억불 매입

- 요지: 이 회사는 전기자동차와 무인 자동차 지출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셈이다.
- GM은 전기차와 무인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의 핵심 자동차 제조 사업의 건전성에 대해 안심시키려고 투자자들에게 현금 환원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.

- 내년에 시행될 자사주 매입 금액은 당초 전기차와 무인 차량 개발에 예전에 할당된 자본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.

WSJ 기사

[미국생활]

Bloomberg: US Life Expectancy Improved in 2022, Rebounding from Covid Lows

미 기대 수명은 2022년에 개선... 코비드로 부터 회복

-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77.5세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기대 수명 개선은 코비드로 부터 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.
- 연방보건 및 인력 서비스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기대 수명은 77.5세로 2021년보다 1.1년 늘어났다.
- 구체적으로 작년 태어난 여아의 경우 80세가 넘고, 신생 남아의 경우는 거의 75세 정도 살것으로 예상됐다.

Bloomberg 기사

WSJ: U.S. Suicides Reached a Record High Last Year

미국 자살률은 작년에 사상 최고치로 늘어

- 미국의 정신건강 위기가 작년에 최고치의 자살률로 몰아갔다.
- 작년에 자살한 숫자는 거의 5만명인 것으로 연방보건 통계센터는 발표했다. 최종 숫자는 이보다 늘 것으로 이 기관을 추정했다. 인구 210만명에 자살률은 14.3명으로 지난 1941년 이래 최고치.
- 이유는, 1백만명 이상이 죽고, 경제가 힘들고 많은 이들을 외롭고 두려운 상황으로 내 몬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이 쉽지 않고, 의료 종사자 부족, 독성 강한 불법 약물 공급, 총기 보편화 등이 자살율을 키우고 있다.

WSJ 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gets a boost as interest rates continue to fall

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모기지 수요가 힘얻어

-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지난주에 7.37%로 그 전주의 7.41%보다 줄어들었다.
-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5% 상승했다. 그러나 1년전의 같은 주와 비교해서 여전히 19%가 낮은 수준이다.
- 전문가들은 지난 6주 동안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구입 신청이 소폭 증가했지만 주택 매물 부족으로 여전히 구매 시장은 침체 상태라고 진단했다.

CNBC 기사

[에너지]

WSJ: Big Oil Bets on Hot Air in Climate Talks COP28에서 느린 에너지 전환 기대 바뀌지 않을 듯

- 각국 정부는 올해 유엔 기후변화 회의인 COP28에 내일 목요일부터 참석한다.
-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제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는 에너지 효율 증대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.
- 그러나 화석 연료 감축에도 동의할 것에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번 회의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입장이 성명서에 포함되면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게는 수요 감소가 시작된다는 신호로 보여질 수 있어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. 정부 수입을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.

WSJ 기사

CNBC: OPEC+ oil producers head into meeting with quota unease and geopolitical risks casting a shadow OPEC+ 산유국들, 내부 갈등 해결 못한 채 회담 참여할 듯

- OPEC+ 국가들이 앞으로의 원유 생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. 이번의 회담은 앞서 내부 불만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.
- 이번 회담에서 모든 관심은 OPEC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일부 국가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인가이다.
- CNBC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, 아프리카의 산유국들 예를 들어,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가 내년도 원유 감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IEA Says Energy Efficiency Must Improve Faster to Reach Net Zero

IEA, “제로 탄소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 두배 이상 올려야 한다”

- 국제 에너지 기구(IEA)에 따르면, 지구 온난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,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두배까지 올려야 한다고 나타났다.
- 이 기구는 오늘 수요일에 국제 전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 말했다.
-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꾼다면, 한 해에 3백만 대의 전기 차량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.
-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에너지 효율 향상성이 2022년도의 2%에서 30년 말까지 평균 4% 이상이어야 한다.

Bloomberg 기사

[전기차]

Bloomberg: Electric-Car Makers Can Stop Worrying So Much About Lithium

전기차 기업들, 낮은 리튬 가격에 걱정 준다

- 2022년 11월 기록적으로 높았던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줄었다. 그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, 니켈과 코발트의 가격도 동시에 내려가면서 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역대로 저렴해졌다.
- 적어도 내년까지는 자동차 기업들은 리튬 가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를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블룸버그 BNEF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내년에도 리튬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, 오직 19%만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.
- 리튬 가격의 감소는 중국에서 리튬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.

Bloomberg 기사

[자동차 파업]

CNBC: GM says union labor deals will increase costs by \$9.3 billion

GM, “새노조 계약으로 93억 불까지 비용 증가”

- GM이 UAW와 캐나다 노조 Unifor와 맺은 새로운 근로 계약이 앞으로 기업 비용을 93억 원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계약이 유지되는

동안 자동차 한 대 생산당 575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.

- 지난 10월 말에 끝난 UAW의 파업으로 인해, GM은 2023년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조정 이익(EBIT)에서 11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.
- GM의 CEO인 Mary Barra는 새로운 근로 계약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Tech's New Normal: Microcuts Over Growth at All Costs 기술 기업들, 성장보다 비용 감소에 초점 맞춘다

- 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의 임원들이 기업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, 수백 혹은 수십명의 직원들 해고했다.
- 이번 감원의 규모는 2022년 말의 대량 해고 보다는 작지만, 이 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다.
- 기업의 효율성에 집중하고, 주주의 이익과 건전한 수익을 강조하는 것이다.
- Facebook의 채용 담당자이자 Pinterest의 채용 책임자였던 Ward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, 비핵심 영역의 인력들을 AI와 같은 프로젝트에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아마존 내부 정보에 따르면, 아마존은 자사의 인공지능 Alexa의 부서에서 올해 수백개의 자리를 제거했는데, 이는 생성형 AI에 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WSJ 기사

CNBC: Apple is trying to unwind its Goldman Sachs credit card partnership 애플, 골드만 삭스에 신용카드 제휴 중지 요구

-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, 애플이 골드만 삭스에게 신용카드와 예금 계좌 파트너십을 앞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.
- 만약 양 기업 간의 제휴가 중지된다면, 이는 은행과 기술 기업간의 가장 주목받았던 파트너십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.
- 이는 또한, 애플이 자사의 신용카드인 애플 카드를 비롯해 애플 브랜드 속에 수익성이 높은 예금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파트너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- 그러나, 아직 애플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지 혹은 금융 상품에 큰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Disney Launches World's First 'Zootopia' Themed Land in China

디즈니, 상하이에 첫 '주토피아' 테마파크 개장

- 월트 디즈니가 중국인들의 수요를 확보하고, 세계 테마파크를 확장하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처음으로 주토피아 랜드 개장을 시작한다.
- 이번 새로운 테마는 주토피아라는 코미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했으며, 12월 20일 개장된다.
- 이번에 가장 주목할 시설은 'Hot Pursuit' 인데, 관광객들은 경찰관 주디 호스와 그녀의 파트너인 닉 와일드와 함께 납치된 팝스타 가젤을 구출하는 추격전에 참여하게 된다.
- 2016년에 개봉한 주토피아는 전 세계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으며, 중국으로 수입된 애니메이션 영화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美기업 이자 부담 40여년 만에 최저...저금리 때 조달 덕분

NYT 분석...좀비·영세 기업들은 이미 고금리 여파 체감

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저금리 당시의 자금 조달 덕분에 4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.

일간 뉴욕타임스(NYT)는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기업들의 순 이자 지급 비용이 3분기에 1천368억1천만 달러(약 176조2천억원)를 기록, 분기 기준 1980년대 이래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.

미국 기업들의 순 이자 부담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에 6천485억6천만 달러(약 835조6천억원)로 고점을 찍었고,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분기에는 5천157억1천만 달러(약 664조4천억원)였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